

언론기사 스크랩

부 서	경북도본부 경산지사		언론매체 구 분	지역신문	
일 자	2009.03.24	매체명	전업농신문	게재면	4면

4 전업농신문

제574호 2009년 3월 24일(화요일)

농지매입사업 대폭 확대 실시

경영평가 후 4월 결정

‘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’의 올해 전국 예산이 지난해 보다 25% 억원 증가된 1450억으로 신청횟수도 4천로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 실시된다.

경산지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횟수를 4천으로 늘린다고 하며, 현재 1차로 지원한 결과 5농가에게 2억1900만원 지원했다고 밝혔다.

2차신청 기간인 지난 21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현재조사 및 농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, 경영실태평가 등을 거쳐 4월 중에 결정을 할 예정이다.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

가들을 도울 예정이다.

사업지원대상은 금융·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, 최근 3연중 농업재해보상인 농가피해율이 50%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.

한편 ‘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’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,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(5~8년)해 영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매년 농지가격의 1%이하의 임대료만 정부에서 농가에겐이 혜택되며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대할 수 있다.

담당	팀장	지사장	3월 4일	결재
				